지상백고좌

목포 달성사 주지 보각 스님

“깨달음, 사회에 나눠야 진짜배기 불교입니다”



보각 스님은…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수천 명의 제자를 길러냈다. 1994년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시작으로 원주 소쩍새마을과 상락원, 자제공덕회 등을 불교계 대표 복지시설로 성장시켰다. 2019년 7월 정년퇴임 후에도 ‘영원한 현역’으로 활동하며 후학들의 존경을 받고 있다. 현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이사장과 목포 달성사 주지로서 포교와 수행에 진력하고 있다.

목포와 불교는 다소 어색하다. 큰 사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불심(佛心)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도 듣기 쉽지 않다. 그래도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대중들은 많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던 여름날, 목포행 기차에 올랐다. 목포와 호남불교에 대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도착한 곳은 목포의 심장 유달산. 목포의 다른 이름이자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 높지는 않지만 목포의 역사, 호남의 문화와 함께해 온 곳이 바로 유달산이다. 산의 크기는 다르지만 목포를 호령하는 기세는 지리산이나 설악산의 그것 못지않다. 유달산 조각공원과 달성공원을 거쳐 달성사로 향했다. 달성사는 목포팔경(木浦八景) 중 제8경 ‘달사모종(達寺暮鍾)’ 즉, 달성사의 종소리를 간직한 사찰이기도 하다.

성곽처럼 솟아 있는 입구를 지나 들어가니 아담한 절이 나온다. 극락보전과 명부전, 종각, 종무소 등의 전각 몇 채와 석탑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달성사에서 목포 시내와 바다를 눈에 담고 잠시 마음을 고른 뒤 주지실의 문을 두드렸다. 큰 키와 호탕한 웃음을 장착한 보각 스님이 반갑게 손을 내밀어 준다.

부처님, 대흥사, 달성사

“달성사는 대흥사에 계시던 선대스님들이 목포의 불교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창건한 사찰입니다. 극락보전 부처님은 강진 백련사, 법당 종은 대흥사 만일암, 지장보살은 나주 운흥사에서 모셔왔어요. 대흥사 차원의 지원과 노대련 선사의 원력으로 태어난 곳이 바로 달성사입니다.”

보각 스님은 2022년 가을부터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중앙승가대에서 평생 후학들을 가르친 뒤 강진 백련사 주지 소임을 거쳐 계속해서 포교와 전법에 진력 중이다.

달성사에서 스님은 매월 초하루와 초삼일에 법회를 열어 불자들을 만나고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목포불교대학에서 강의한다. 또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는 목포교도소에서,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는 화성교도소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스님들의 기본 임무잖아요.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것이 포교이니 인연 따라 불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도 전법이었습니다. 하하.”

스님의 출가본사는 대흥사다. 현대 호남불교의 중흥조로 존경받는 천운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스님의 출가는 어쩌면 필연이었던 것 같다.

“저는 태몽부터 남달랐습니다. 하하. 어느 날 가사장삼을 수한 노스님이 산에서 내려와 바랑을 열어 큰 목탁을 꺼내 주셔서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 가슴에 안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태어났다고 해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시는데 지역에서 유명한 무당이 어머님 앞으로 와 ‘향냄새가 지독하게 난다. 향내 나는 아들이 있네’라고 했답니다. 그 무당이 저의 출가를 예언한 셈이죠.”

불교 궁극적 목적은 ‘중생구제’
그 구체적 실천행이 ‘사회복지’
‘직업 승려’ 비판, 부끄러운 일
보살행 실천하는 수행자가 돼야

불공, 전각서 목탁 치는게 아냐
중생 행복케 하는 게 곧 ‘불공’
깨달음, 중생에 회향돼야 의미
“사회복지가 바로 불공의 실천”

스님은 7남 1녀 중 여섯째다. 형제들과 함께 어머니를 따라 절에 자주 다녔다. 어머니의 지극한 기도를 보며 자연스럽게 불교에 귀의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이웃을 잘 돌볼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러 광주로 나갔습니다. 그때 너무 추워서 어머니가 당신이 입으시던 빨간 내복을 빨아서 저한테 주셨어요. 광주 시내 구경을 하면서 버스에 앉아 있었는데 거지 아줌마가 어린 애를 업고 차에 오릅니다. 어머님이 그들을 보시더니 ‘얼른 내복 벗어라’고 하세요. 어머님의 눈빛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옷을 벗었어요. 버스에 있던 어른들이 저를 보며 ‘착한 놈이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은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 오면 꼭 상을 차려 주셨어요. 반찬이 하나일지라도 꼭 상으로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셨습니다.”

스님의 성장 과정에서 어머니는 그야말로 부처님이었다. 어머니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슴에 새기고 새겼다.

보각 스님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영암 망월사로 가 출가를 했다. 나중에 사형(師兄)이 된 망월사의 스님들이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추천했다. 그래서 광주 향림사에서 수행자의 길을 시작했다.

“어머님께서는 제가 계(戒)를 받을 때 직접 가사장삼을 해주셨습니다. 어찌나 정성을 들여 만들어 오셨는지 참 정갈했습니다. 출가하고 한참 뒤에 속가 집에 갔더니 유학(儒學)을 공부하셨던 아버님이 유언처럼 한 말씀 하셨습니다. ‘불도(佛道)도 도(道)이고 네가 좋아서 출가했으니 반대는 안 한다. 다만 중도 속인도 아닌 것처럼 어정쩡하게 살지 말라’고 말입니다. 아버님의 당부가 저에게는 큰 힘이자 숙제가 되었습니다.”

보각 스님은 계(戒)를 받은 후 대흥사 동국선원에서 정진했다. 안거가 끝날 때쯤 대학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스승의 허락을 받고 세속의 책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출가 전부터 경영학에 관심이 많아서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불교학을 공부했으면 큰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일반대학의 경영학과에 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찰에서 부전 소임을 보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2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복학하려는데 일이 생겼어요. 제적처리가 돼 있었습니다. 경영학과에 결원이 없어 사회복지학과 2학년으로 재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의 ‘역경’이 제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최초의 불교사회복지사”

스님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해 사회복지학 공부를 이어나갔다. 사회복지 공부가 경영학만큼 재밌었다.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아르바이트는 멈추지 않았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낮에는 학교에 갔다가 저녁에는 다시 기도를 하는 생활이 반복됐다.

스님이 석사과정을 마치고 난 뒤 종단에는 큰일이 생겼다. 바로 10·27 법난이 일어난 것이다. 법난을 수습하면서 중앙승가대에는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됐다. 당시 학인스님들을 가르치던 호진 스님과의 인연으로 스님은 중앙숭가대에서 본격적으로 후학양성을 시작했다.

1985년 3월 수행관장 겸 사회복지학과 강사로 중앙승가대와 인연을 맺은 스님은 2년 뒤 전임강사가 되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13면에 계속

삶의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다
내 곁엔 관세음보살이 계시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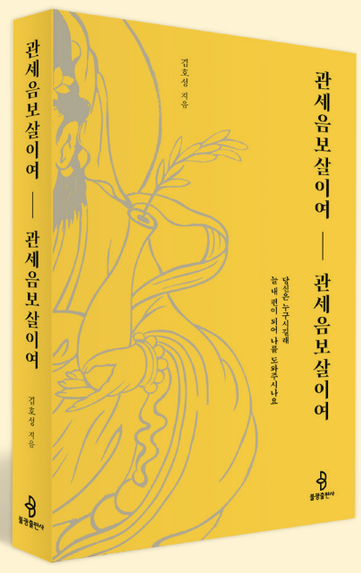
관세음보살이란 어떤 존재이며, 관음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관세음보살의 모든 것!

“선남자여,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른다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찰하시고 모두 벗어나게 할 것이다”
-『법화경』 제25「관세음보살보문품」

『관음경』 전문 번역 수록

관세음보살이여
관세음보살이여

김호성 지음 | 304쪽 | 19,000원



당신은 누구시길래
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나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비디오

나보다 바쁘고 열정적인
전 세계의 성공한 유명인들은
왜 명상을 선택했을까?

넘쳐나는 명상의 세계 속에서
길을 헤매는 당신을 위한
명상계의 미쉐린 가이드!

세계 최고 명상가들의
25가지 명상 레시피
명상맛집

강민지 지음 | 296쪽 | 20,000원

